

스물네번째 이야기

[2019 40주년 BEE WORLD CONFERENCE 현장]

비엔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다!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달리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40년 전(1979년) BEE의 첫 발을 내딛던 바로 그 도시이다. 루마니아를 향해 가는 열차 위에 올랐던 조디 딜로우(초대 총재)의 모습을 BEE 구성원이라면 한 번쯤 사진으로 봤을 법하다. 오늘 이곳에서 그 역사적 현장 속의 인물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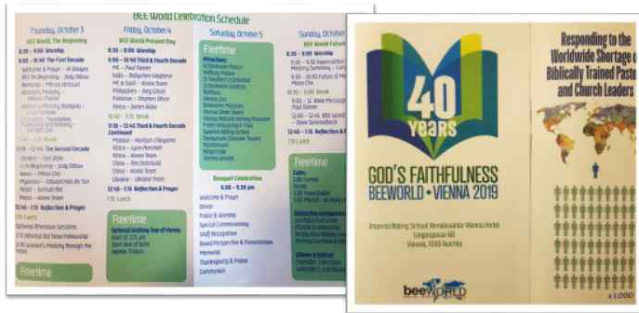
두 명의 선교사(조디 딜로우, 알 브리지스)에 의해 시작된 사역이 열방으로 흘러흘러 큰 물결을 이루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이제 그 두 명의 선교사와 함께 사역의 동역자들이 모여 사역의 열매들 속에서 40년의 살아있는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였다.

25년 전부터(1994년) 이 사역에 동참한 BEE KOREA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진다. BEE KOREA는 늦게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누구보다도 사역에 앞장 서 왔고 앞으로의 40년을 책임지고 나아갈 동력을 뿜어내고 있다.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40주년 컨퍼런스답게 많은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짧지만 임팩트 강한 선교 보고들이 4일에 걸쳐 이어졌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미얀마, 네팔, 인도, 카타르, 필리핀, 파키스탄, 말라위, 우간다, 중국 등등. ‘여성 사역’과 ‘번역·출판·미디어 사역’에 관해서도 정성스런 발표가 있었다.

행사 마지막 날 주일, 다가올 40년의 사역을 그려보는, ‘BEE의 미래’에 관한 조문상 선교사님의 리포트는 참가자 모두의 가슴을 두드렸다. ‘참된 복음’이 점차 사라져가는 현 세태에 위기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성공이 아닌 섬김’(Not Success, But Service)의 사역만이 살아있는 복음을 지켜갈 것이라는 울림이 컨퍼런스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40주년 컨퍼런스 팸플릿과 일정 주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비엔나에 있었던 BEE WORLD 최초의 사무실을 설명하는 조디 딜로우(초대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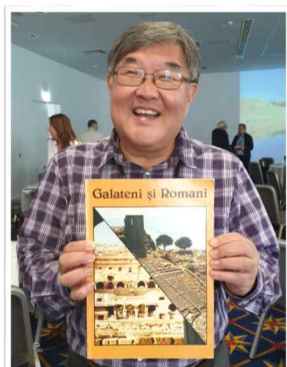
김사무엘 선교사님과의 만남과 BEE KOREA의 시작을 설명하는 조디 딜로우



BEE KOREA의 역사를 설명하는 조문상 선교사님

서아프리카 사역을 설명하는 김용달 선교사님. 가나에서의 4세대 사역 및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까지 확장되는 사역 설명

동아프리카 사역을 설명하는 박은형 선교사님. 무려 7개국의 사역을 7분 안에 보고



BEE WORLD 최초의 교재(루마니아어 갈라디아서&로마서) 원본을 들고 있는 조문상 선교사님, 해맑은 흰머리 소년이 보인다^^



주말 저녁 성찬 후 한국 테이블에 찾아와 인사 나누는 데이브 서덜백 부부 (현 총재, 3대)

이번 컨퍼런스로 확인된 점!
 ☆한류는 BEE에서도 통한다.
 ☆BEE KOREA is Dynamic!!!
 ☆비엔나 = BEE & ‘나’



컨퍼런스 공식 일정 틈틈이 그리고 자유 시간에는, 여유롭지만 코리아 특유의 ‘바쁨’을 발휘하며 각개 팀을 구성해서 비엔나 곳곳과 잘츠부르크 투어 및 국경을 넘어 부다페스트까지 원정을 다녀왔다.



비엔나 그라벤 거리에서, 시원시원한 도심에 다리도 덩달아 길어지고~

비(엔나) 미녀 4총사의 행복한 오후, 성스테파니 성당 앞

말로만 들던 ‘비엔나 커피’, 본명은 ‘아인슈페너(Einspanner)’



헬부른 성, 도 레 미 파 솔♪~



잘츠부르크 ‘사운드 어브 뮤직’ 투어 중, 헬부른 성 꽃밭 속에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BEERS~^^



성안드레 교회에서 발견한 십자가, 일명 삼위일체 십자가. (by 김용달 선교사님)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 주인 잃은 신발들. 나치의 핍박으로 유대인들이 총살당하고 강물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형상화한 설치미술작품. 슬픈 역사, 남 이야기가 아니다.

비엔나 공항 근처 중앙묘지에 있었던 대가들의 무덤. (왼쪽부터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의 무덤. 이외에도 브람스, 요한 스트라우스 등 음악가들 뿐 아니라 과학자, 건축가, 현대만화작가 등 유명인사들의 무덤, 그리고 일반인 가족묘도 있음)

기자는 공교롭게도 비엔나 공항 옆 묘지에서 은혜로웠던 이번 여정의 발걸음을 멈췄다. 우리네 인생의 종착지일런가... 묘지에서 나올 무렵 발견한 묘비명을 바라보며, 'BEE & 나' 2019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WIEDERSEHEN~!” (다시 만나리~!)

BEE WORLD, BEE KOREA의 사역은 결국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야 될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임.

[취재: 김종영, 편집: 최선- 'BEE수'기자]

BEE의 보석 찾기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24. 윤기민 집사



30년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친구 덕분에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동기 목사님께 성경공부를 하며 BEE를 소개받았고, 갈라디아서 인도자이신 나문채 선교사님의 열정에 완전 이끌려 BEE 여러 과목을 수강하며 기도모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BEE는 제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특히 A국 BEE 아웃리치에서 당시 믿음이 없던 사랑하는 아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폭포수처럼 경험했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EE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며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온누리 교회 관악금천 공동체에서 순식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회선교부 새사람 사역팀원으로 소망교도소에서 일대일과 공감인성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아내, 아들, 딸, 사위 그리고 사랑스런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25.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동아프리카 테이블 식구들의 기도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시며 테이블 식구들의 사랑을 이리도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누구??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 1. 10월, 말씀을 행하라! ‘충성 - 신실함과 신뢰할 만함. 자신이 부름 받은 일은 무엇이든지 부지런히 행함. 섬기는 일이나 사람을 저버리지 않음’이 우리 BEE 가족의 삶의 곳곳에서 실행되기를 기도합니다.
- 2. 10월 26일(토), 2019 하반기 온비아 수련회가 충남 공주지역에서 기독교 역사 순례로 이루어집니다. 참석하는 모든 학생과 인도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남기신 흔적들을 따라가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되기를 기도합니다.
- 3. 기도 테이블 소식입니다.

*본부 동북아 테이블은 신대원 6학기이신 이영애 권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셔서 그동안 학업과 일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아프리카 중앙아 테이블은 오늘 멀리 가나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15일(화)-18일(금) 온누리 교회 비타민C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가나 현지 사역자들이신 멘사 목사(女), 알라리 목사, 데이 목사 그리고 로미티 성도께서 방문하여 서로 축복하며 함께 하였습니다.

